

【 해외금융 뉴스: 복미 】

오바마 행정부, 감세 연장안 합의

-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소득세 감세 연장안에 합의했으며, 이번 안이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의회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감세 연장안은 부시 행정부 시절 시작된 감세정책의 연장선과 함께 급여세 (payroll-tax) 감세와 실업급여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2년 간 약 9천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소한 중산층에 대한 감세 연장에는 합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고 감세안 연장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경기부양의 정도는 감세가 어느 정도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임.
 - J.P. Morgan은 감세 연장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0.5% 증대시킬 것으로 예측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3.5%로 상향 조정하였고, 골드만삭스 또한 경제성장률을 1.0%p 상향 조정한 3.7%로 전망함.

- 그러나 감세 연장과 함께 실시되는 급여세 감세의 효과가 불확실하며, 이번 감세 연장안이 1조원에 달하는 정부부채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급여세 감세는 지난 10년간 세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일시금을 지급한 2001년과 2008년에는 대부분 저축에 사용되면서 소비증가로 연결되지 못했고, 2009년에는 근로자 세금공제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음.
 - 2009년과 현재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급여세 감세의 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실업급여 연장정책은 실업자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재정적자 해소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이번 감세 연장안은 재정적자 논쟁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봄에 있을 연방부채 상한 확대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Wall Street Journal, 12/8)